



주간통일정세 2014-25(2014.06.23~06.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25

Contents

-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2. 대외관계
 -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2. 북한인권
 - 3. 탈북자
 - 4. 이산가족
 - 5. 납북자
 - 6. 국군포로
 - 7. 대북지원
 -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노동신문, 대중 선전선동 독려…"모두 선동원 되자"(6/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전 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당 일꾼이건 행정경제 일꾼이건, 중앙의 일꾼이건 아래 단위의 초급 일꾼이건, 모든 일꾼들과 평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사상교양 사업, 정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대중의 정신력이 어떻게 발동되고 우리 당의 결심과 구상이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꾼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이 사람들을 교양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평양고아원 건설장 시찰…"소외계층 돌봐야"(6/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아 양육시설인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줘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적 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기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인민무력부장 현영철로 교체(6/25,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평양 과학자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거리 건설현장에서 24일 열린 군민quel기대회 소식을 전하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 동지"를 대회 보고자로 소개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1949년생으로 알려진 현영철은 백두산 서쪽 북중 국경지역을 담당하는 8군단장 출신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 1인자로 통하던 리영호를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한 2012년 7월 그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전격 발탁됐던 인물임.

- **北, 새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김정은 참관(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며 김 제1위원장이 중앙감시소에서 전술유도탄의 기술적 제원을 파악하고 직접 시험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함.



- 이어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전술유도탄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며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술유도무기의 과학기술적 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고 설명함.
- **'김정은 측근' 마원춘 국장, 베이징 방문(6/27,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이자 김정은 체제의 '신실세'로 알려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중국 베이징(北京) 전자과학직업학원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원춘 북한 국방위 설계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21명이 10일 오후 주중 북한대사관 이강봉 참사관의 인솔을 받아 우리 학교 도서관을 방문했다"고 밝힘.
- **北 신문 '자주' 강조..."대국의 압력도 굴복 못시켜"(6/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전 주민에 대한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해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체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 특히 신문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해오신 대원수님들(김일상·김정일)의 영도가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 책동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며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은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주장함.
- **北 잡지, 김정은 화법 분석..."핵심은 통속성"(6/29, 문화어학습;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 계간지 '문화어학습' 최신회(올해 5월 27일 발간)에 실린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올려주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언어표현'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김정은 화법의 핵심 특징으로 '통속성'을 꼽았다고 전함.
 - 뉴스는 이어 북한의 '조선말사전'은 통속성을 "말과 글, 그 밖의 표현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고 통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칭송 일색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잡지가 김 제1위원장의 화법을 분석적으로 조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힘.



■ 김정은 동향

- 6/25,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육아원·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 (6.25, 중앙통신 중앙방송)
- 6/27, 김정은 黨 제1비서,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지도(6.27, 중앙통신·중앙방송)
- 6/29,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갈마식료공장을 방문하고 조업준비를 잘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6.29, 중앙통신 중앙방송)
- 6/2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성수(8·28무역관리국 부원) 등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29, 중앙방송)

■ 기타(대내 정치)

- '김정은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6월 24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육군 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6.25, 중앙방송)
- 6·25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6·25전쟁에서의 승리는 김일성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였다'며 '김일성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주장(6.25, 중앙통신·노동신문)
-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즈음 평안남도 함경남도 양강도의 '미국 규탄·反美' 군중대회, 6월 26일 진행(6.26, 중앙통신)
- 황해남도·함경북도, 6월 27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즈음 군중대회 진행(6.27, 중앙통신)
-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의해 우리(北) 인민은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었다'며 '주체사상' 강화를 강조 (6.28,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나. 경제

- "러, 한반도 상황 나아져야 '北 통과' 가스관 건설"(6/24, 러시아의소리)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부사장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나아지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4일 보도함.
- 英 민간단체, 北에 6번째 빵공장 건립 계획(6/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대북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 사랑'은 황해남도 해주에 빵 공장을 새로 세우고 오는 9~10월부터 인근 5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할 계획임.



-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나잔선봉에 2천500여명, 평양 2천500여명, 평안북도 향산 5천여명, 황해북도 사리원과 남포에 각각 5천여 명 등 총 2만여 명의 북한 어린이에게 빵을 지원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유엔, 올여름 北 홍수 대비 구호품 준비"(6/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니세프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올해 여름 홍수에 대비해 각종 구호품을 미리 준비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이 중에는 1만 가구에 3개월 동안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수제와 위생용품, 영양실조 어린이 1천명을 위한 생활필수품, 수재민 1만명이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 등이 포함됨.
- "北 관광상품, 중국 인터넷서도 인기 상품"(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에서 최근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등 북한 관광이 중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인을 겨냥한 북한 관광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 세칭(携程)이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베이징에서 출발해 북한에서 골프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5일짜리 여행 상품이 1만2천200위안(19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외국 구호단체들, '모금난' 속 대북지원 이어가(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비정부 구호단체 '미국친우봉사단'이 지난달 말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 농업 기술 전수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사도 지난 10일부터 3일간 평안남도 순천에서 대규모 홍수 가상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120여명이 참여해 홍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RFA는 전함.
- "北 쌀값, 이달 중순부터 안정세...올감자 수확 때문"(6/26, 데일리NK)
 - 26일 데일리NK의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으로 평양과 혜산의 쌀값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1kg당 각각 100원, 150원씩 오른 4천300원, 5천50원으로 나타남.
 - 반면 신의주에서는 쌀값이 4천500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kg당 200원이나 내려 이는 지난달 말 1개월 만에 쌀값이 평균 800~900원씩 올랐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함.



- **중국인들 이제 자가용 차량으로 북한관광(6/26, 두만강보)**
 - 최근 중국에서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헤이룽장(黑龍江)성 주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북한 관광에 나섰다고 현지 신문인 두만강보(圖們江報)가 26일 보도했다.
 - 신문에 따르면 관광단을 모집한 하얼빈철도국제여행사 관계자는 "훈춘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있는 도시여서 관광시장 전망이 밝다"면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자가용 관광단을 3차례 더 조직할 계획"이라고 말함.
- **EU, 北 병충해 방제에 4년간 11억원 지원(6/27,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농작물 보호와 방제 사업에 지난 4년간 약 111만 달러(11억2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EU 원조개발협력청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병충해 방제 사업을 벌이는 유럽 정부간기구 농업생명과학센터(CAB international)에 올해 26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12년과 2010년에도 각각 49만 달러, 36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힘.
- **北中, 두만강 하구 원정리-申취안허 새 교량 건설 협정(6/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의 원정-권하(취안허) 새 국경 다리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7일 평양에서 체결됐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양측 당국의 위임을 받아 교량 건설 협정문에 서명함.
- **北 나선경제특구서 북중 '낙시관광축전'(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두만강변의 나선경제무역특구에서 28일 북한과 중국의 낙시꾼들이 참가한 '나선-옌지(延吉) 낙시관광축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번 축전은 나선국제여행사와 지린(吉林)성 옌벤(延邊)구주여행사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서생활을 향유하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나선시 낙시질애호가협회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낙시협회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서 중국중고차 밀매 성행... "신차수입 감소영향"(6/29, 연합뉴스)**
 -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의 중국 신차 수입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북한에서 중국의 중고차 밀매가 성행하고 있음.
 - 뉴스는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한 기사에서 나선특구를 비롯한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육로국경을 통해 반입한 중국의 중고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당 2만 위안(330만 원)가량의 웃돈을 주고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 밝힘.



● 北도 '2차원 바코드' 도입하나..."연구사업 성과"(6/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상업활동에 적극 이용되고 있는 2차원 부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보표시능력이 선부호(바코드)보다 높은 2차원 부호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2차원 바코드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함.
- 신문은 2차원 바코드가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보다 정보기록 용량, 정보복원, 위조방지 등의 기능에서 훨씬 뛰어나고 휴대전화 보급으로 2차원 바코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차원 부호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며 "2차원 부호에 의한 식별기술이 상업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될 전망이 열렸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내 경제)

- 새로 건설(평양 교외) 조업한 광명레드·태양전지공장의 '건축물(에너지 절약형)·레드등 생산 공정과 일체화된 기업구조 및 3세대 태양전지 개발 진행' 등 "조명산업발전을 추동할 새로운 첨단제품생산기지"로 선전(6.23, 중앙통신)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자들의 봄철 풀씨파종계획 131% 수행 및 살림집건설 성과 선전(6.25, 중앙통신)
- 원산수산대학의 "무석축반이합금(8성분) 개발 및 '내구성·내열성' 등 "석축반이합금(바 - 83)을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축반이합금"이라고 선전(6.26, 중앙통신)
- 청진강재공장의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와 평안남도 회창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6.28, 중앙방송)
- '나선-연길 낚시관광축전', 6월 28일 나선시에서 진행(6.28, 중앙통신)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6월 25일 현재 상반기 석탄생산계획 105% 초과 수행 선전(6.29, 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 평양국제축구학교도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6/23, 연합뉴스)

- 북한이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최근 외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23일 웹사이트에 최근 이 여행사의 주선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구경했다며 방문기와 함께 영상과 사진을 게재함.



- **北, 장애인복지 '박차'...단체 발족인프라 구축(6/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북한에서 작년 12월 '조선농인협회가 생긴 데 이어 올해 3월 21일에는 '조선맹인협회가 출범했다고 보도함.
 - 맹인협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글자(점자) 정보기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함.

- **北서 '축구 드라마' 인기몰이(6/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북한의 축구 꿈나무와 이들을 키우는 처녀 축구감독의 열정을 그린 3부작 TV드라마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과 관련된 기사를 3쪽지나 실으며 연출가와 주연배우, 드라마의 인기 등을 상세히 소개함.
 - 평양영화연극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이 제작한 이 드라마는 2009년부터 전국의 소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축구부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감동과 재미를 더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매년 625 때 北 주민들이 찾는 곳은 '계급교양관'(6/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4일 평양시 중앙계급교양관 관계자를 인용해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는 요즘 계급교양관으로는 하루에만도 수천 명의 각계층 군중과 청년 학생들, 인민군 군인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개성시 계급교양관에서 "분계연선시대(전방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미 계급교양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전함.

- **"北,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참가 긍정 검토"(6/25, 연합뉴스)**
 - 6월 중순 방북했던 대북지원단체 '푸른나무'의 신영순 공동대표는 25일 "지난 16일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는데 북측이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함.

- **北, 英 문화원과 영어교육교사강습 MOU 체결(6/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의 영어교육 및 교원강습계획을 위한 양해문(MOU)이 2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함.
 - 최근 유럽과 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1일 교사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월어민 영어 강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전세계 철새가 평양으로..." 北 '생태환경' 선전(6/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금수산 태양궁전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 나무에 서식하는 중백로와 밤물까마귀(해오라기) 수가 1천600마리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힘.
 - 신문은 "남방의 더운 습지대에서 번식하는 중백로와 해오라기가 이곳에서 집단 번식하는 것은 이채로운 현상"이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우



거져 서식에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돼 지구 방방곡곡의 새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편다"고 주장함.

● "장마피해 막자"...北, 홍수 예방사업 총력(6/2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난 시기 침수 피해를 받았던 교훈에 기초해 큰 물과 비바람으로부터 생명과 시설물, 생신수단,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다양한 홍수 예방사업을 소개함.
- 이어 조선중앙방송은 다음 달 5일부터 15일 사이 북한 지역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며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장마철 대책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北에서도 헌혈 독려..."청년들 헌혈 앞장서"(6/24 조선신보; 6/29 연합뉴스)

- 24일자 조선신보는 북한 보건성에서 열흘 전 열렸던 '세계 헌혈자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하며 리현철 보건성 수혈원 원장을 인용해 "조선에서도 청년들이 자원 무보상급혈자(헌혈자) 모집에서 앞장에 서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29일 북한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모범적인 헌혈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당국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혈액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석지동(농업성 부국장), 황해남북도·개성시·강원도 등 가뭄지속으로 "수만정보의 논이 갈라 터져 농작물 생육에 지장" 초래 및 각지 농촌들에서 군민(軍民) 총동원의 "가뭄과의 투쟁·물절약 투쟁" 전개 전언(6.23, 중앙통신)
- 北 내각 및 농업성 일꾼들 등, 각지의 가뭄 극복사업(농작물 보호 위한 전투 전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속 보도(6.24, 중앙방송)
- 北 올해 여름철장마, 7월 5일~15일 사이에 시작 예보(6.2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소프트웨어산업 책임자 몽골 방문(6.28, 중앙통신)
- 함경북도,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대책(배수설비들 정비 보수 등) 강구(6.27, 중앙방송)
- 北 역도선수 김수정(女), 2014년 세계 청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1위로 금메달 쟁취(6.27, 중앙통신)
- 장마철을 즈음하여 '지난 시기 침수피해를 받았던 교훈에 기초하여 큰물과 비바람으로부터 생명과 시설물,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장마철 피해 방지대책 강구 보도(6.28, 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중동지역 불안은 '미국 탓'...연일 대미 비난(6/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중동 평화과정에 던져진 어두운 그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스라엘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 약 200명을 체포하는 등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해 "사실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릇된 책동 때문에 중동 평화과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상에 반발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협상을 중단한 것도 "이스라엘의 영도강탈 책동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결과"라며 "미국이 걸으려는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의 망동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日 고노담화 흔들기, 당장 걷어치워야"(6/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시기 고노담화가 외교적 실수라느니 뭐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공식적인 부정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이 최근 노골적으로 검증을 운운한 보고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그릇된 역사관의 집중적 발로"라고 밝힘.
 - 이어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로서 결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늘날 일본이 성노예 범죄를 집요하게 왜곡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함.
- **조선신보 "美 궁극적 목표, 이라크 3개로 지역 분할"(6/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이라크를 종파와 종족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분할하기 위해 이슬람 수니파 반군의 공세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23일 '메이리'라는 코너에서 "알말리키 정부가 미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했지만, 오바마 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가 "매우 적은 전력으로 이라크 모술을 함락시키고 바그다드로 진격하고 있다"며 "이런 엄청난 일이 쉽게 성사될리 없다는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함.
- **"이노키 등 일본 야당의원 6명 다음달 방북"(6/23,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이 다음 달 9~15일 야당 소속 중참의원 5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노키 의원실이 밝힘.
 - 이노키 의원 등은 개성공단과 평양 시내 스포츠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며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작년 난민 인정 탈북자 급감...심사 강화 탓"(6/24, 미국의소리(VOA))
 -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를 인용해 작년 한 해 전세계적으로 탈북자의 난민 인정이 모두 7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341건의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탈북자의 난민 인정 건수가 급감하고 기각 건수가 늘어난 것은 세계 각국에서 탈북자의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VOA는 분석함.

- "일본인 9명, 이달 26일 성묘 위해 방북"(6/2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4일 일본인의 '성묘 방북'을 지원해온 민간단체 '북 유족연락회'를 인용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들의 유족 9명이 이달 26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함.

- 北 "미국이 6.25 전쟁 도발"...비난기사 쏟아내(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2~6면 지면을 할애해 6.25전쟁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남한과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 신문은 6면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침략 야망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했으며 남조선과 함께 역사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베네수엘라에 대사관 설치 승인받아"(6/2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5일 베네수엘라 외교부 관보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도 카라카스에 북한 대사관의 설치를 승인했다고 전함.
 - 이는 처형된 장성택의 매부인 전영진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작년 3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대사관 개설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북한이 올해 4월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VOA가 설명함.

- 北 외무성 "김정은 암살 영화는 테러행위"...보복 위협(6/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영화사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예고편을 공개한 것을 '노골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영화가 상영되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함.
 - 나아가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영화로 만들어 내돌리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가장 노골적인 테러행위이며 전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북일, 내달 1일 회담..."제재해제 내주 결정" 전망도(6/25,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내달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기사다
 -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5일 밝혔다
 -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의하면 기사다 외무상은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함.
- **北, 6.25 맞아 "美, 한반도 전쟁위기 책임 있어"(6/25, 연합뉴스)**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상보'를 통해 한반도 정세는 64년 전 6.25 전쟁 때와 다를 바 없다며 "극한계선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이 땅의 험악한 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어 "이 땅에서 제2의 6.25가 기필코 핵전쟁으로 되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오직 강력한 총대만이 조미(북미)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의 절대적 담보"라고 강조함.
- **北, 6.25 맞아 평양시 반미 군중대회 열어(6/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6시부터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를 생중계함.
 -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백 년 숙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TV는 전함.
- **北, '중립국감독위 참여' 중유럽 대표단 방한 비난(6/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6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중유럽 4개국의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 대표단이 이달 중순 한국과 첫 고위급 정무회의를 하려고 서울을 방문한 데 대해 "미국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오래전 사멸된 정전감독기구의 존재를 거론해 대며 우리를 함부로 걸고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비셰그라드 대표단이 중감위의 상징성을 강조한 데 대해 "조선반도 정세가 항시적인 긴장 격화에서 벗어나자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수작으로 제 본심을 서슴없이 드러냈던 것"이라고 지적함.
- **"조선총련 의장, 내달초 방북 계획"(6/26, 산케이신문)**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이 다음 달 8일 열리는 김일성 주석 20주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함.
 - 허 의장은 지난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일본이 취하기로 한 조치의 하나인 인적왕래 금지 해제가 방북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함.



- **재미 한인, 유엔 北대표에 '이산가족 상봉 촉구' 서한(6/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상봉추진위는 서한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고령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고 RFA가 전함.

- **北신문, 서방러시아 갈등 부각해 '러시아 편들기'(6/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격화되는 군사적 대결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이 최근 유럽에서 '셰이버 스트라이크-2014'와 '발트옵스-2014' 군사훈련을 벌이고 러시아가 이에 맞서 칼리닌그라드주에서 훈련을 한 데 주목하며 "최근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 신문은 "미국이 겉으로는 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수로 간주하고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완전 포위하고 끊임없이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연습들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함.

-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6/28, 연합뉴스)**
 -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공동 발의자 게리 코널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법안은 북한 당국에 '재미동포를 포함한 한국 이산가족들에게 제약없는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뉴스를 전함.

- **"北, 주한 호주대사 입국비자 발급 거부"(6/28, 디오스트레일리안)**
 - 북한이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일행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8일 보도함.
 - 주중 북한대사관은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의 북한 정권 비판 발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신문은 분석함.

- **北러시아 군악단, 평양서 합동시가행진(6/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9일 러시아 국방부 중앙군악단과 북한의 인민군 군악단,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이 전날 평양에서 합동시가행진과 군악 예식을 했다고 전함.
 - 방송은 군악단들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고 나서 오금철 군 상장, 문철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의 환영을 받았고 군악 예식을 펼쳤다고 전하며 이번 시가행진에 대해 "두 나라 수뇌부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더욱 좋게 발전하고 있는 친선협조 관계를 시위했다"고 평가함.

● **외무상 "북일 국장급 협의, 변경 생각하지 않는다"(6/29, 교도통신)**

-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이 29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음 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언급함.
- 통신은 기시다 외무상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정부 간 협의의 장에서 다루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하는 한편,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국제사회의 위협우려를 어느 면에서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변국 등에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북송 일본인妻 조사 착수"(6/29, 산케이신문)**

- 북한이 재일 조선인 남편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국적 아내(북송 일본인 처<妻>)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남북 일본인 관련 문제를 전면 재조사한다는 북일 합의가 지난달 29일 발표되고 나서 국가안전보위부 지방조직에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조사하라는 통지가 상부에서 전달되었으며 일본의 대북 정보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52)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나 양강도에서 조사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김학철(駐페루 北 대사, 77개 집단 수뇌자회의 참가 北 대표 단장), 6월 17일 볼리비아 사회주의에로의 운동 부위원장(곤셉썬 오르띠스) 면담(6.23, 중앙방송·중앙통신)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막대한 지하자원을 약탈한 행위를 거론하며 '일본 반동들은 죄 많은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한사코 거부해 나가고 있다'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6.24, 중앙통신)
- 美 7공군 사령관(잔 마크 주아스)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6.28, 중앙통신)



- 미국의 파키스탄·예멘 등 무인기 공습과 민간인 피해 및 외국 정상들 도청 등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하며 미국의 '201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인권재판관 행세' 배경(6.29, 평양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 6·25 맞아 선군정치 강조... "핵억제력 다질 것"**(6/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면에 걸쳐 6·25 전쟁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감.
 - 신문은 2면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북침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확립해 공화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미국과 남조선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군사동맹 강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도 가담해 조선반도를 전쟁 접경에 몰아넣고 있다"며 "선군정치는 침략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백승의 무기"라고 주장함.
- **北 "南, '북핵위협' 언급 말고 민족대결책동 중단해야"**(6/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비난하며 핵위협을 말하기 전에 '북침 핵전쟁 위협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함.
 - 통신은 25일 '민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박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개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기 전에 외세의 북침 핵전쟁 위협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총대 위에 행복도 있다"... 생존 위한 '무장' 강조**(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4일 '문암의 석수소리'라는 장문의 '정론'에서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15~16세의 소년소녀들이 '복수심'으로 자강도 장강군 문암리 소재 지하 군수공장에 들어가 포탄을 만든 사연을 소개하며 생존을 위한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 **北 조평통 "韓美, 6·25전쟁 일으킨 도발자"(6/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6·25전쟁 발발일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재차 밝힘.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남측에서 열린 호국행사와 한미 해병대 합동 전투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과 괴뢰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6·25전쟁 발발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발전적 정상화 종합점검"(6/25, 연합뉴스)**
 -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장급 이상 남북 당국자 간 접촉으로,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6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함.

- **北, 정의화 의장 '통일' 발언 비난... "흡수통일 망언"(6/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만텔라식 용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흡수통일 야망'을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난함.
 - 또한 정 의장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통일국가의 국호에 대한민국 감투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식민지로 만들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사대매국 행위이며 민족반역의 극치"라고 통신은 비난함.

- **北, 원산 인근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6/26, 연합뉴스)**
 - 북한이 2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께부터 원산 북쪽 지역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3회에 걸쳐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여km 정도로 판단된다"고 말함.

- **北 "南, 연평도 해상 포격 도발...보복 준비 완료"(6/26, 연합뉴스)**
 - 북한군은 26일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오늘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우리 측 수역을 향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대한 고의적인 선불질(서투른 총질)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북침 흥계의 노골적인 발로"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어 "조성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 관하 모든 타격집단들은 완전한 보복 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타격 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라며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기다리고 있는 최고사령부의 타격 명령 뿐"이라고 위협함.

● **北 조평통 "문창극 사태 책임 김기춘 경질해야"(6/26, 조선중앙통신)**

- 조평통은 26일 서기국 보도에서 김 실장이 문 전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워 비호했다며 "남조선의 각 계층은 구시대의 유신 잔당이 아직 살아남아 청와대의 제왕 노릇을 하면서 온갖 재난과 참사를 다 불러오는 천하의 재앙거리 김기춘을 더이상 그대로 두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오늘 북남관계가 심각한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은 김기춘과 같은 악당이 청와대의 중추에 들어박혀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반통일 극우보수세력의 반공화국 모략대결 광란을 총괄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고 있는 데 있다"며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북남관계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동해상으로 스킨드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500km(6/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29일 새벽 스킨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4시50분과 4시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킨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500km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함.
-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3~4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가. 정치·군사

● **백범 김구 선생 65주기 '南北 공동 추모문' 발표(6/26, 연합뉴스)**

- 김구 선생 추모단체인 '피스코리아'(총재 김민하)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는 이날 발표한 추모문에서 "김구 선생의 애국적인 한생은 우리에게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민족의 통일대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이어 추모문에서는 "우리는 민족 내부의 불신과 대결, 적대의식을 해소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함.



- **남북, 北산림녹화사업 재개 합의... "병충해 방제 우선" (6/26, 연합뉴스)**
 - 남북 민간단체들이 5·24조치로 중단된 대북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이운식 겨례의숲 사무처장은 26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와 "남과 북이 산림 병충해 과제를 우선 과제로 정하고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평양 대상 용약산, 금강산, 묘향산 등에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남과 북이 병충해 방제를 우선 과제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팩스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함.

- **北 교원단체, '전교조 범외노조' 판결 비난 (6/27, 연합뉴스)**
 -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 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 망동"이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각계층은 참다운 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파쇼 무리의 폭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총괄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함.

■ 기타 (대남)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 해명(6.19, 親日 오해 등)은 "국무총리 자리를 기어이 타고 앉기 위해서"라며 "친일사대매국노, 정치미숙아" 등 비난 지속(6.23, 중앙통신)
- GOP 무장탈영병 총기난사 사건 관련 KBS방송을 인용하여 간략히 사실 보도(6.24,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신뢰프로세스'를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놀음"이라며 '6·15 및 10·4선언 이행의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주장(6.29,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미사일 발사 준비시간 최소 2주 단축<美전문가>(6/25, 연합뉴스)**
 -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닉 한센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서해 동창리 발사장의 경우 열차로 미사일을 옮기는 방식을 적용해 발사대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시간이 적어도 2주일 가량 단축됐다"고 주장했다.
 - 한센 연구원은 1960년대 중반 미국 육군에서 위성사진 분석을 시작한 권위자로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상업용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서해 동창리의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설을 현대화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 "로켓을 세우고 위성을 올리는 작업은 많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고 지도부의 현지 방문도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올여름까지 로켓 발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나. 미북 관계

- **北미사일 대응 美 MD 요격실험 성공...6년만에 처음(6/23, 연합뉴스)**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북한 등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한 미사일 방어(MD) 요격실험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신뢰도 논란에 휩싸인 미국 MD의 핵심체계인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의 서해안 추가 배치계획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 미국이 미사일 방어 요격실험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만으로, 조지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MD 시스템 설치 후 8차례에 걸쳐 실험을 했으나 단 세 차례만 성공해 그동안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요격실험 성공으로 GBI 추가배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제임스 시링(해군 중장) 국장은 "MD 체계의 신뢰도 증강에 중요한 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 **美국무부 "北단거리 발사체 주시...어떤 발사도 동의못해"(6/23, 연합뉴스)**
 -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서 "정확히 어떤 형태의 발사체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의 발사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을 하는 행위여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분명히 어떤 발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쏘아올린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한 초정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시진핑, 한국 먼저 찾는 것은 대북압박(中정치학자)(6/24, 연합뉴스)
 -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추수룡(楚樹龍) 칭화대 교수는 24일,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해 원유공급 중단, 마카오 계좌 동결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대북 압박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 다만,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 대해 "한국이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중국)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동정하고 있으며 그들은 60여 년 넘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통일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통일 후 주한미군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지만 미중 관계가 좋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대북 원유수출, 사상 첫 5개월 연속 '제로'(6/26, 연합뉴스)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26일, 중국 해관총서가 집계한 5월 중북 무역 통계 자료를 토대로 대북 원유 수출을 분석한 결과 1~4월과 마찬가지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제로'(0)를 기록한 것임.
 - 지금까지는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4월)와 제2차 핵실험 강행(5월) 등의 초대형 악재가 있었던 당시의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없었던 때가 가장 긴 시기였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중국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원유공급 감축 등을 제재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추정이 많았기 때문임.
 - 하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무상원조 등을 통해 북한에 원유 공급을



하고 있을 가능성과 중국 통계 자체의 오류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으며,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었다고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시진핑 방한 앞두고 北 잇단 '무력시위'성 움직임(6/29, 연합뉴스)**

- 북한은 사거리를 연장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이어 29일 새벽에 사거리 500km의 스킨드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무력시위성 움직임을 재개했음.
- 북한의 무력시위성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나, 그 이후에는 추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내주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제기되고 있음.
- 정부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으로서 시 주석의 방한은 상당한 숙제"라면서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도발로 나타날지 다른 창의적인 방안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 남북 관계

● **日, 北에 납북자 관련 150가지 질문 다시 할 방침(교도)(6/2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2일, 일본 정부는 조만간 열릴 일본과 북한의 정부간 협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과거 북한에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는 150가지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150가지 항목의 질문서는 납치 피해자 10명에 관한 북한의 조사결과를 보고 일본이 의문점을 지적하며 2002년 10월 북한 정부에 처음 전달한 것으로, 북한은 이에 근거해 2004년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재차 답변을 요구한 바 있음.
- 아사히신문은 납북자 재조사 협상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전망했으며,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피랍 일본인 일부와 함께 귀국해 구체적인 성과를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빅터 차 "납북자 재조사 합의, 일북 쌍방에 도박"(6/24, 연합뉴스)**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선임연구원은 24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납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북한과 일본의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도박'이라고 평가했음.
- 그는, 북한은 일본이 만족할만한 회답을 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아



베 정권으로서도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화재개의 압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이어 이번 교섭은 인권 문제를 내세웠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약속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일본에 제언했으며, 미북 대화 관련해서는 일북 교섭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마간 대화가 재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음.

● **일본, 내달 1일 회담... "제재 해제 내주 결정" 전망도(6/25,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5일, 북한과 일본이 내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음.
- 또한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걱정성 확인 후 대북 제재 일부의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음.
-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위원회 참여가 상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며, 제재 해제 대상 중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허용은 이르면 다음 달 4일에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망했음.

● **일본, 북한 선박 입항금지 단계적 해제<닛케이>(6/28,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에 따라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할 때 선박 왕래의 경우 최초에는 소규모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되 빈도를 제한할 것이며, 조사 진전 상황을 확인한 후 점차 허용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보도했음.
- 이에 대해 신문은, 과거에 만경봉호가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밀수, 현금 불법 반출, 공작원과의 연락 등에 사용됐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라며, 초기부터 대규모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면 공작원이나 위법 물품이 일본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단계적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쏜 것에 관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끼칠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장급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마. 러북 관계

- **러, 한반도 상황 나아져야 '北 통과' 가스관 건설(6/24, 연합뉴스)**
 -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24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부사장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나아지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을 시작할 것이며 이에 한국과 북한도 같은 의견이라고 보도했음.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5일 양국간 무역 대금을 러시아 통화로 결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경제 협력안에 합의한 바 있는데, 가스프롬은 본 프로젝트가 30~3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방송은 분석했음.
 -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가스관 건설 계획은 최근 양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작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핵실험 예고 등 돌발 상황과 미국중국과의 정치적 대립이 가스관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조태용 외교차관, 美에 '고노담화 검증' 강력한 우려 전달(6/23,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윌리엄 번즈 부장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이번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음.
 - 조 차관은 회동을 마친 뒤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나 대화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며, 앞서 전날 벅쇼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음.
 - 이에 대해 번즈 부장관은 기존 국무부의 입장표명대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장(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한국에 中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불참 요구<교도>(6/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8일, 캐롤라인 앳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가를 보류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 이와 관련 NSC 대변인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은 각국의 변제 능력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고 부정이나 난개발을 막는 높은 기준을 확



립했는데, AIIB는 이를 실천하고 기존의 국제개발기관과 협력해 공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과 그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맞서는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AIIB는 ASEAN을 중심으로 20개국 이상이 참가를 검토 중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때 한국 정부의 참가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나. 한중 관계

● 주석 취임 후 첫 국빈 방한 시진핑의 '보따리' 뭘까(6/27, 연합뉴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는 7월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공식 발표하고 양측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문제·지역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로도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와 내포 의미가 상당한데, 이는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체제 이후 총서기 신분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중국의 첫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임.
- 또한 시 주석은 북한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과의 기존 회담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도발 방지 및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아울러 중일 양국이 영토, 과거사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어 당분간 시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거나 양국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이슈를 둘러싸고 한중간 대일 공조를 강화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보임.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고노담화 흠집내려 할수록 상처만 입을 것"(6/23, 연합뉴스)

-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23일,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아베 내각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대해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입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에 공식 항의했음.
-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작성 경위 검증은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 고노담화의 의미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정부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을 계기로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것으



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홍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엔 등도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

● '위안부문제' 한일 국장급 이번 달 협의, 어려울 듯(6/24,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2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 번째 한일 국장급 협의회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 영향으로 이달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 한일 양국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회를 처음 개최한 뒤 매달 1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양국은 4월 협의회에 이어 지난달 일본에서 두 번째 협의회를 가진 뒤 6월 중 서울에서 협의회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음.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 일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따른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협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음.

● 일본 외무상 "고노담화, 한일 양국정부 노력의 결과"(6/24, 연합뉴스)

- 기사가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고노(河野)담화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는 점이 검증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 그는 "(검증) 보고서가 고노담화의 신뢰성에 전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루지는 것에 관해서도 이번 검증으로 종래의 역사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음.
- 그의 발언은 한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고노담화를 수정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고노담화가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에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임.

라. 미중 관계

● 주중 美대사 "중국과 북한 문제 공조 강화할 것"(6/25, 연합뉴스)

-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는 25일 베이징에서 지역 및 전 지구적 안정을 위협하는 이슈의 주요 예로 북한과 이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대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아태 지역의 안정은 미중간의 건설적인 관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면서 '강하고 안정되



고 변영하는 중국은 미국과 지역 및 세계에도 좋은 것이라고 전했음.
-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기본 권리를 평화적으로 요구하는 온건한 사람들을 체포했다"면서 "우리는 이들이 시민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반체제인권 운동기들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을 압박했음.

● **중국, TPP 참여시 GDP 2%p 증가효과(6/25,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 경제성장률(GDP)을 2% 포인트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마진(馬駿) 인민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이달 중순 내부 발표회에서 중국이 TPP 협상 참여로 얻는 이익이 앞으로 수년간 2% 포인트의 누적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TPP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에 맞서 아태 자유무역지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고위인사가 "중국은 TPP 가입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TPP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마일 관계

● **美전문가 "아베 고노담화 검증은 미국 향한 유치한 반향"(6/23, 연합뉴스)**

-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결과는 (고노담화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반향하려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음.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일본 국내여론과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담화의 진정성은 한일관계 진전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평가했음.
-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번 검증은 한일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며 양국관계에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번 검증이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국내정치적 지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바. 마러 관계

● **오바마-푸틴 전화통화...우크라 해법 '동상이몽 여전'(6/24, 연합뉴스)**

-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지난 6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으나 해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노출했음.

-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무기 공급과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음.
- 반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교전을 실제로 중단하고 양측(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세력)이 협상을 시작하는 게 우크라이나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강조했다.

● 미국, 러시아 추가 제재 논의(FT)(6/25,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에 기술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의 기술 비율이 10%가 넘으면 수출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재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미국만 일방적으로 제재를 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미국 기업들은 물론 EU의 에너지 업계도 이와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백악관 자체도 최근 몇 달간 러시아 제재 범위를 놓고 분열된 상황이라고 FT는 전했다.
-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보임.

사. 중일 관계

● 중국 "고노담화 검증은 日 침략죄행 부인 의도"(6/23,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일본이 역사를 지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침략을 미화하고 부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음.
- 또한 "강제동원된 위안부는 반인도주의 죄행으로 이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며 일본이 책임 있는 태도로 고노담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와 같은 답변은 일본 정부가 최근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중국 측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 **위정성 中정협주석, 日대표단에 '관계회복' 강조(6/2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5일,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전날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일본 사민당 당수 일행을 만나 양국 관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요시다 사민당 당수는 이에 대해 "사민당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고수할 것이며 역사적 교훈을 깊이 간직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 일본 사민당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과 회견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며, 일본 언론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5명의 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야당 측 인사들을 접견한 것 자체가 중국이 아베 정권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중국, 일본 집단자위권 결정 앞두고 연일 '경고음'(6/26, 연합뉴스)**
 - 양위권(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일본이 다음 달 1일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 안에 대한 각의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군사영역에서의 그 어떤 정책조정도 이웃국가들의 주권과 안전이익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특히, 난징대학살희생동포기념관에 걸려 있는 대표적인 문구인 '과거를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자'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만약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실패로 끝난 역사적 전철을 다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일본 측에 "정상적인 정신상태부터 회복하라"며 비난한 데 이어 25일에도 필리핀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에 "(필리핀은) 긴장대립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 중러 관계

- **중국 "푸틴의 군사력 사용승인 취소요청 평가"(6/2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군사력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평가한다"며 "이것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또한, "중국은 당사국들이 휴전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제네바 합의 등의 기초 위에서 대화, 협상을 강화해 전면적인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아내 조속히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호주 외무장관 VOA 인터뷰 내용 맹비난(6/23, 미국의 소리)**
 - 북한 외무성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호주 외무장관을 비난함.
 - 북한 외무성은 2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호주 외무장관이 망발을 했다고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자기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이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함.
 - 북한 외무성은 이에 대해 호주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표류하던 북한 어민 1명 동해에서 또 구조(6/23, 미국의 소리)**
 -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에 탄 북한 어민 1명이 한국 해경에 의해 구조됨.
 - 구조된 북한 어민은 20대 남성으로, 한국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들어갈 예정임.
 - 한국 정부는 북한 어민이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함에 따라 북한 당국에 별도의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임.
 -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어획고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잇따라 선박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이 동해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북한 선박들이 먼바다까지 나갔다가 선박 상태가 나빠 조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북, 농업개혁 1단계 일인당 천평 임대"(6/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올해부터 분조관리제, 포전관리제를 골자로 하는 농업개혁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단계에서는 소규모 땅을 나눠주고, 수확량의 60%를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함.
 - 평안북도의 한 중급 공무원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1차 과도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인당 1천평 규모의 토지가 부여되고,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개인과 국가가 6:4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 이는 당초 북한이 농업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7:3의 비율로, 국가가 70%, 농민이 30%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진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아직 수확량 배분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 공무원은 "처음에 농민들에게 1천 평 규모로 땅을 나누어주었다가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해부터 1정보, 2정보 이렇게 점차적인 방법으로 늘리게 된다"고 말해 북한이 농업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 단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그는 농지개혁에 대한 상부의 지시사항을 인용하면서 "분조관리제 도입을 3단계로 정하고 올해부터 3년 사이에 농업개혁을 전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북 용천군에 홍역 크게 번져(6/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평안북도 용천군에 홍역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어린이 사망자까지 발생해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음.
-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은 홍역의 확산으로 인해 어제(6/23) 현재 어린이 3명이 사망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번 홍역은 용천에서 선박으로 중국을 드나드는 선원들이 옮겨온 것이라는 보건 당국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당국이 홍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용천 이남 사람들의 신의주 방문을 금지시켰으며 신의주 사람들의 용천군 방문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밖에도 "보건당국에서 신의주와 용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라부라 홍역 예방 주사를 놔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에는 현재 홍역이 돌고 있는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을 다녀온 선원으로부터 홍역이 전염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보건당국이 내부 발생 홍역을 두고 방역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변명하는 것 같다고 주장함.
- 한편 북한당국과 언론은 지금까지도 용천군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임.

● "北,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참가 긍정 검토"(6/25, 연합뉴스)

-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공식 발표한 북한이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도 참가할 것으로 보임.
- 이달 중순 방북했던 대북지원단체 '푸른나무'의 신영순 공동대표는 25일 "지난 16일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는데 북측이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 신 대표는 "북한이 최근 국제대회 참여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도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인 신 대표는 지난 14일부터 평양, 원산 등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시설을 점검하고 북측과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지난 21일 한국으로 돌아왔음.
- 북한이 인천 대회에 참가를 검토 중인 선수단 규모는 탁구, 수영, 양궁, 육상 등 4개 종목에 10~12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은, 평양육아원 건설현장 방문... "고아, 미래역군" (6/25, 데일리NK)

- 북한 김정은이 평양육아원(고아원)과 애육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고아들과 독거노인들을 돌볼 것을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함.
-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정은이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려는 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함.
- 김정은은 또한 고아원의 침실과 책상, 의자도 "아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가구와 비품, 집기류들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함.

● 평북도에 고아 애육원 3곳 건설(6/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고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전국에 애육원을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각 도마다 애육원이 생겨나고 있음.
- 최근 연락이 된 평안북도의 30대 청년은 "당에서 고아들을 맡아 부양하라고 지시해서 현재 평안북도에는 3개의 도급 애육원이 생겨났다"면서 "신의주와 동림군, 삭주군 이렇게 모두 3군데 건설 중"이라고 설명함.
- 각 애육원마다 150여명의 고아들을 수용하게 된다고 소식통이 말해 평안북도에는 450여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애육원이 건설되고 있음.
- 북부에 위치한 삭주군 애육원에는 정주 이북지방에서 떠도는 꽃제비들과 부모 잃은 아이들을 데려가고, 신의주와 동림군 애육원에는 내륙지방의 고아들을 수용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그는 "올해 초 애육원을 지어주라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안북도 도당과 해당 군당에서 건설에 동원됐고, 고아들에게 물고기 반찬과 5대5로 된 잡곡밥을 먹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 한편, 황해도 지방에서 들어온 교원출신의 주민은 최근 북한이 고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국에서 고아들을 돕는다고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비밀을 빼내간다"면서 "고아 정책은 외부 의존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고아에 대한 당국의 투자가 증대되는 이면에도 애육원을 탈출하는 꽃제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북한, '취약국가지수' 26위...한국 156위"(6/26, 연합뉴스)
 - 북한이 세계에서 26번째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평가가 제기됨.
 -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와 초당파적 연구단체인 '평화기금'에 따르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취약국가지수(FSI:Fragile States Index)를 산출한 결과 북한은 총점 120점 가운데 94.0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함.
 - 포린폴리시와 평화기금은 2005년부터 매년 인권, 치안, 경제 상황 등 12개 항목을 토대로 국가별 불안정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명칭을 기존의 '실패국가지수'(The Failed States Index)에서 취약국가지수로 변경함.
 -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의미로, 북한은 첫째 총점 97.3점(120점 만점)으로 13위(전체 146개국)를 기록한 이후 줄곧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23위(95.1점)에 비해 3단계 내려갔음.
 - 북한은 특히 평가 항목 중 정부의 적법성 부문이 10점 만점에 9.9점으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음.
 - 포린폴리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주민탈출(4.4점)과 망명(4.7점) 부문의 점수를 거론하면서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북한이 덜 취약하다"고 평가함.

- 북, 해외주재원 인터넷사용 금지령(6/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최근 해외에 주재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에 인터넷 사용금지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업무상 필요한 본국과의 이메일(전자우편) 주고받기도 금지함.
 - 북한당국이 최근 해외무역 주재원에게 인터넷 사용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외화벌이 일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당국의 인터넷 사용금지령에 따라 그동안 본국과 이메일(전자우편)로 업무연락을 하던 북한의 무역주재원들이 사소한 일도 팩스로 연락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사용금지령을 내린다고 해서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맞본 주재원들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한편 북한 무역주재원들과 친분이 깊은 한 조선족 인사는 "무역 주재원치고 노트북 컴퓨터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면서 "이들이 언어가 같은 남한의 인터넷망을 주로 접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함.
 - 해외 주재원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금지령은 북한당국의 훈령을 받은 현지 북한 공관을 통해서 일단 구두지시의 형태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곧이어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앞서의 조선족 소식통은 "후속조치로 주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모두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주재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으며, 반납명령이 내릴 경우 주재원들이 개인 컴퓨터를 숨기고 중고를 구입해 반납하려 하면서 중고 컴퓨터 상점이 호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북, 국경통제 완화에 밀수는 활기(6/26, 자유아시아방송)

- 당국이 국경경비대 대원들을 지나치게 혹사하는데다 감당 못할 과제까지 부과하면서 북-중 국경연선에 대한 북한 국경경비대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엄했던 경계가 완화되면서 북중 국경을 통한 밀수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초부터 단속 완화로 인해 밀수가 재개되고 장마당이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해 겨울부터 국경경비의 강화로 밀수가 막힌 데다 올해 4월 중순부터는 농촌동원까지 시작되면서 장마당 유통이 중단돼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 최근 들어 국경경계가 완화되고 밀수가 시작됨에 따라 밀수꾼들이 들어온 한국산 화장품과 여성들의 속옷들을 넘겨받기 위해 전국의 달리기(유통) 장사꾼들이 국경연선 장마당들에 몰리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국경경비가 완화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국경경비대 지휘부가 지나치게 대원들을 혹사하고 중앙에서 과도한 과제를 내준 것이 통제가 풀리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의 국경경비 중대만 해도 매일 부업 밭 동원으로 대원들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는데, 대원 1인당 말린 산나물 4kg씩 바치라는 과제까지 내주었다고 언급했음.
- 이런 문제로 하여 국경경비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밀수꾼들과 내통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밀수를 허용하는 대신 경비대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말린 산나물이나 절인 산나물을 얻어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임.
- 그는 또 "이렇게 국경을 통한 밀수가 가능해졌음에도 전파감시는 오히려 강화돼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불법휴대전화의 사용이 한층 어려워졌다"며 "이는 국경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천 AG 앞서 남북 장애인 친선탁구대회 추진"(6/27,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0월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를 확정하면 이 대회에 앞서 남북한 친선 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장애인탁구대회의 부대 행사로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뤄 세계 정상에 올랐던 현정화-리분희 선수의 친선 경기도 추진돼 대회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신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현정화-리분희 선수 경기는 남북 화합을 상징하는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대회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푸른나무 측은 북측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北 13년만의 최악 식량난 왜?(6/27, 문화일보)**

- 북한이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올해 식량 생산량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어느 때보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보임.
- 27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와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농업생산 기반이 낙후된데다 연료부족에 따른 낮은 기계화 수준, 비료 부족, 수확 후 자연 손실, 대외 지원 감소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관개 저수지의 저수량은 지난 2012년 37억4560만m³에서 2013년 36억4400만m³로 감소했으며, 펌프와 배관시설 역시 낙후된데다 전력 불안정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 최근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대북 식량 지원을 기존 계획보다 30% 감축했다고 밝혔음.

● **"北, 주한 호주대사 입국비자 발급 거부"(6/28, 연합뉴스)**

- 북한이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일행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8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패터슨 대사 등 호주 외교관 5명은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최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았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음.
- 주중 북한대사관은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의 북한 정권 비판 발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음.
- 이밖에도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직을 맡아 북한의 인권상황을 앞장서 비판한 것이라든가 최근 호주군이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것도 비자발급 거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방북 영국 외교관 "평양 지방 격차, 정보통제 심각"(6/28, 미국의 소리)**

- 미국 워싱턴의 영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알렉스 브룩스 서기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뒤 영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여행 소감에서 평양과 지방의 대조적인 생활상과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냄.
- 영국 외교부 방문단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브룩스 서기관은 평양의 다양한 건설 현장과 늘어난 고급 자동차들을 보면서 번성하고 있는 듯한 겉모습에 놀랐으나, 상황이 열악한 지방을 방문하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평양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권이 선호하는 정치적, 경제적 특권층만이 평양을 방문하고 거주하며 평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데 반해 지방은 농업 중심의 집단노동과 저개발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함.
- 브록스 서기관은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소개했는데, 신뢰하기 힘든 공공 서비스와 제한적인 생필품 구입 환경, 행정적 문제, 여타 고립 국가들보다 더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평양의 외국인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음.
-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북한 주민 누구도 워싱턴에 근무하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거나 질문하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가 얼마나 능숙한지 상기시켜줬다고 말했음.

● 북한 '홍수 예방사업 총력'(6/28, 미국의 소리)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난 시기 침수 피해를 받았던 교훈에 기초해 큰 물과 비바람으로부터 생명과 시설물, 생산수단,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다양한 홍수 예방사업을 소개했음.
- 각지 농촌에서는 배수로 정리와 하천 정비가 진행 중이며 광산들에서는 갭도 배수 체계를 점검하고 석탄정광 보관장소의 비막이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철도 부문에서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보강작업이 진행 중이며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와 평안북도의 청천강계단식 발전소 건설장 등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가설물자재 점검을 하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다음 달 5일부터 15일 사이 북한 지역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며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장마철 대책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北에서도 헌혈 독려... "청년들 헌혈 앞장서"(6/29, 연합뉴스)

- 많은 주민이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겪는 북한에서도 헌혈자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음.
- 북한에서는 평양과 각 지역에 있는 '수혈소'(채혈하는 기관)를 찾아 피를 뽑는 행위를 '급혈'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피를 무료로 기증하는 행위인 헌혈을 북한에서는 '무보상급혈'이라고 함.
- 이달 24일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보건성에서 열흘 전 열렸던 '세계 헌혈자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하며 리현철 보건성 수혈원 원장을 인용해 "조선에서도 청년들이 자원 무보상급혈자(헌혈자) 모집에서 앞장서 있다"고 전했다.
- 리 원장은 북한에서는 2012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국제적십자연맹과의 연계 밑에 대학생들의 헌혈자 모집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음.
- 조선신보는 "지난해에만도 평양시의 여러 대학에서 150여명의 대학생들



이 정기적인 무보상급혈자로 자원해 나섰고 올해는 성, 중앙기관, 공장
과 농장의 수많은 근로 청년들도 무보상급혈자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
했음.

- 북한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모범
적인 헌혈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당국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북한이 이처럼 주민들 속에서 무상 헌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혈액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는데, 수혈소를 찾는 주민
대부분이 자신의 피를 뽑은 대가로 돈이나 식량을 받아가기 때문임.

2. 북한인권

● 위철환 협회장, "북한인권상황 악화"(6/23,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과 최영익 국제이사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아시아변호사협회 단체장회의(이하 'POLA')에 참석함.
- 위 협회장은 제1세션 '인권과 법치주의-구체적 인권 쟁점(미얀마와 북
한인권 포함)과 인권 증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서 북한의 인권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인권실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 위 협회장은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전후하여 노동당규약,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헌법을 개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상과 생활통제
를 강화했고, 수사와 예심, 재판과정 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및 고문과 폭행, 강제낙태, 성폭행 등이 여전히 자행하고 있으
며 주민들에 대한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 독일서 북 인권단체 연대 움직임(6/24,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한인인권옹호협회가 시급한 북한인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독일 내 인권단체들의 연대 등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 중임.
- 이 단체의 변효인 홍보담당은 독일 내에서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인권 단
체들 간의 연대방안을 위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 독일 내 설립된 대북인권 단체 대표들이 서로의 활동 계획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특히 베를린은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
행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이 많이 있어 북한인권 활
동을 위한 독일인과의 연대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 변 홍보담당은 나아가 국제적인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펼치기 위해 우
선 독일인들에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한인인권옹호협회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나
영어로 된 북한 관련 기사의 독일어 번역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국전쟁 64주년 맞아 '北인권 사진전' 열려(6/26, 데일리NK)**
 - 엔케이워치(NK WATCH)는 한국전쟁 64주년을 기념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개최함.
 - 사진전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인권 관련 사진 50여 점이 전시됐고, 북한인권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 범죄 및 인권유린 실태를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음.

- **러시아 언론인 "북 내부 취재 제약 커"(6/26, 자유아시아방송)**
 - 외국인으로서 북한 내부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고 평양에서 다년간 기자생활을 한 러시아 언론인이 말했음.
 - 러시아 정보통신사 이타르타스(ITAR-TASS)의 전신인 타스(TASS)의 기자로 평양에서 5년 간 일한 이반 자하르첸코씨는 "북한 내부에서 기자들은 북한 정권이 심어주는 고정관념의 인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음.
 - 자하르첸코씨는 26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터에서 '미디어의 인식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백지 상태에서 정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만 보고, 따를 뿐이다"고 설명함.
 - AP통신이 서방 언론사 중 최초로 평양에 종합지국을 열었고, 프랑스의 AFP 통신도 곧 평양에 사무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이들 언론사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하르첸코씨는 정확한 답변 대신 "외국 언론사가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변함.
 - 자하르첸코씨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서방 언론사의 평양 지국 개설 및 방문을 환영하는 이유는 자국이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서임.
 -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 북한을 방문한 그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음.

3. 탈북자

- **지난해 탈북자 난민 인정 급감...전세계 71명 뿐(6/24, 미국의 소리)**
 - 유엔난민기구(UNHCR)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해지난해 전 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탈북자가 71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뤄진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480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412건은 기각됨.
 -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07건을 심사해 86건을 기각하고 21건만 승인했



고, 영국이 35건을 심사해 10건만 승인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심사한 128건과 91건 모두 기각했음.

- 앞서 전년도인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41건이 승인되고 204건이 기각됐었는데, 이처럼 지난해 들어 기각률이 급증한 것은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임.
-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음.
-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난민 신분으로 전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1,166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의 절반인 630명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에 127명, 독일이 112명, 러시아가 74명, 벨기에가 68명, 미국에는 23명의 탈북자가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음.
- 이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음.

● '닥터 이방인'의 현실...탈북의사 3만 국내면허취득(6/24, 연합뉴스)

- 현실 속 북한 출신 의료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탈북 의사가 한국 의료계에서 자리를 잡고 그 실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데, 북한과는 다른 교과 과정, 생소한 의학 용어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이왕재 소장이 지난 20일 '북한 의료인 한국사회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면허를 신청한 탈북자 43명 가운데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13명으로, 신청자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에 그침.
- 이 소장은 "북한에서 대학 졸업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탈북 의료인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지만 한국 의료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이 소장은 대다수의 탈북 의료인이 영어 공부의 어려움과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한면서, "한 북한 출신 의사는 환자를 보면 어디가 아프겠다는 건 알았는데 CT(컴퓨터단층촬영)에 나타난 증상을 읽을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 또한 그는 "남북 의료인력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양쪽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모두 아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탈북 의료인의 면허 취득을 도와주고 이들의 임상 활동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태국서 탈북자 21명 또 체포...한국 등 제3국행 희망(6/25, 데일리NK, 6.25)

- 정부는 태국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21명이 태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24일 밝혔다.
- 정부 당국자는 이날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보



- 이는 남녀 21명이 체포됐다. 여기에는 어린이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한국 등 제3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당국자는 "태국 현지 우리 대사관이 22일 탈북자들이 체포된 사실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지난 7일에도 탈북자로 추정되는 13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돼 이민국수용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콩서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시위(6/26, 자유아시아방송)**

- 홍콩이 영국 정부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지 17주년을 맞는 다음달 1일 홍콩에서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 홍콩 최초의 북한인권단체 '탈북자 관심'이 다음달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1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가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이 단체 오웬 라우 대표가 밝힘.
- 라우 대표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된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탈북자를 박해의 위협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홍콩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요청할 것이며, 특히 최근 늘고 있는 홍콩 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탈북자 강제복송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임.

4. 이산가족

● **재미 이산가족, 유엔 북 대표에 서한(6/2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의 단체인 '전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미국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함.
- 자유아시아방송이 25일 입수한 편지를 보면 헤어진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늘고 있다면서 80대나 90대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음.
- 전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대표부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행동 촉구 서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함.

●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6/28, 연합뉴스)**

-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확인 결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한 대북 제재강화법안(H.R.1771)에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이 첨부돼 함께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음.



- 에드 로이스(62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돈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는 H.R.1771 법안에 통합된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은 게리 코널리(64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음.
- 코널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법안은 북한 당국에 '재미동포를 포함한 한국 이산가족들에게 제약없는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남북자

- "日, 北에 납북자 관련 150가지 질문 다시 할 방침"(6/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에 150가지 문항에 관한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과거에 북한에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는 150가지 항목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조만간 열릴 북한과 일본의 정부 간 협의에서 북한에 촉구할 예정임.
 - 이들 항목의 질문서는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 10명에 관한 북한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일본이 의문점을 지적하며 2002년 10월 북한 정부에 처음 전달한 것으로, 당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공한 조사 결과에서 생년월일이나 주소가 잘못됐고 병원 관련 서류 등이 엉망이라고 판단했으며 북한이 주장한 사망 원인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음.
 - 북한은 일본이 제시한 150개 문항에 근거해 2004년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후 북한의 회신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 문항에 관해 재차 답변을 요구했음.
 - 이에 북한은 이들 10명이 사망했거나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종결함.
 - 납북 일본인 가족의 모임과 지원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은 22일 도쿄도(東京都)에서 집회를 열어 "살아서 구출을 기다리는 납치 피해자를 우선 돌려보내기 바란다"고 주장했으며 약 200명이 참가함.
- 아베 "현 시점 방북 고려 안해"(6/24,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8월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아베 총리는 현 시점에서 방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 방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음.
 - 아베 총리는 현 상황에서 방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먼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면서, 조치 후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견지에서 자신의 향후 행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함.

- 앞서 20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말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서려는 계획을 연기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북한 방문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있음.

● 6.25 전쟁 전후 납북자, 국립묘지에 첫 안장(6/25, KBS)

- 6.25 전쟁 전후 납북자가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임.
- 국방부는 지난 1967년, 연평도 인근에서 납북된 고(故) 최원모 씨의 위패가 다음달 11일 쯤,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최 씨는 6.25 전쟁 당시 북진호 선박 대장으로, 중공군 포로와 물자를 노획한 전공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전후 납북자로서는 처음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음.
- 또한 당시 군번도 없는 비정규군으로 대북 첩보 임무를 맡았던 유격 백마부대, 이른바 '켈로부대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음.

● 북일, 내달 1일 회담... "제재해제 내주 결정" 전망도(6/25,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내달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5일 밝혔음.
- 기사다 외무상은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함.
- 일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북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사다 외무상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한 뒤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음.
- 이번 협의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예정임.
- 교도통신은 제재 해제 대상 중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허용에는 내각회의(각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정례 각의에서 이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류길재 통일장관 "北, 납북자 송환 노력에 호응해야"(6/27,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5회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상봉·서신 교환을 추진하고 나아가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류 장관은 납북자 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슬픔과 사회적 낙인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위로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위를 지



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넘어선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역설했음.

- 이어 "정부는 가족들의 신고와 전국 범위의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납북 피해자의 기억과 사연을 담은 기념관과 추모탑 건립도 추진하는 등 납북 피해의 진상 규명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북송 일본인妻 조사 착수"(6/29, 연합뉴스)

- 북한이 재일 조선인 남편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국적 아내(북송 일본인 처<妻>)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납북 일본인 관련 문제를 전면 재조사한다는 북일 합의가 지난달 29일 발표되고 나서 국가안전보위부 지방조직에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조사하라는 통지가 상부에서 전달됨.
- 일본의 대북정보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52) 오사가 사무소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나 양강도에서 조사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산케이신문은 당사자가 일본에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고향 방문이 아닌 영구 귀국을 염두에 둔 조사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가 끝났다는 분석이 북한중국 관계자에게서 나오고 있음.
- 이 신문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이들은 주소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가족이 통째로 행방불명된 일도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일본인 부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기 때문에 수용자 처형 등을 담당할 국가안전보위부 주변에서는 "민감한 사례를 어떻게 보고할지 머리가 아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음.

● 日외무상 "북일 국장급 협의, 변경 생각하지 않는다"(6/29,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29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음 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날 언급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정부 간 협의의 장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함.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국제사회의 위협우려를 어느 면에서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변국 등에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납북자 조사 등에 관해 북한과 일본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코 북한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영NGO, 북 아동위한 6번째 빵공장(6/23,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대북지원단체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이 나진 선봉, 평양, 향산, 사리원, 남포에 이어 해주에도 어린이 식량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여섯 번째 빵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섯 번째 빵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 단체의 지원을 받는 북한 어린이가 모두 2만 5천여 명에 이르게 된다.
- 단체의 대표인 조지 리 선교사는 하루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추가로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영국 돈 5천 파운드, 미화로 7천600여 달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전함.
- 이 단체는 현재 나진 선봉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자금이 마련되면 다시 북한을 방문해서 나머지 5개 도시의 빵공장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유엔, 북한에 홍수 구호품 비축(6/2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을 비롯한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은 올 여름 홍수에 대비해 홍수로 피해를 입은 1만 가구에게 3개월간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수질 정화제, 그리고 물 저장고와 위생 용품등 구호품들을 미리 비축했다고 전함.
- 북한 전역에 비축된 구호품은 급성 중증 영양실조(severe acutely malnourished: SAM)에 걸린 어린이 1천명에게 제공할 생활 필수품과 2만 5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교육 지원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뿐만 아니라, 평양 '중앙 구호 센터'에 약 1만명의 북한 수재민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있는 구급 약품이 든 구호 상자 16개, 그리고 구 단위 창고 2곳에 같은 구호 약품 상자도 각각 2개씩 준비해 놓음.

● 미NGO, 쌀 증산 신기술 북에 전수(6/2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은 지난달 말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농업기술 전수사업의 진척상황을 점검했음.
- 미국친우봉사단의 린다 루이스 대변인은 지원단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평안남도의 협동농장을 방문했으며 플라스틱 육묘상자 사용 등 모내기 준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함.



- 루이스 대변인은 작물의 수량과 모종을 내다 심는 시기를 맞추는 일명 '지속가능 뿌리 강화'(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농법을 도입하고 플라스틱 육묘상자를 사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면서 평안남도 4개 협동 농장의 쌀 수확량이 이전보다 2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 북한 당국도 새로운 모내기 법과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종자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북한 전역으로 신농법을 전수할 계획임.
- 북한 농민대표를 중국에 보내는 농업 연수 지원도 진행 중임.

● IFRC, 북한서 홍수 대피 훈련(6/24,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송천에서 올 여름 홍수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경보와 대피와 관련한 가상 훈련을 진행함.
- '공동체 조기 경보와 대피 체계'(Community Based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System: CBEWES)라는 제목의 이번 대규모 가상 훈련에는 약 120명의 북한 당국자와 조선 적십자사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전국 9개 도에서 온 '지방 재난 대응 팀'의 구성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특히, 평양으로 집중돼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전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시, 도, 군 단위의 관료들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음.
- 북한 당국과 국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그들이 필요한 긴급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전했다.
- 또한 올 여름 홍수에 대비해 홍수 피해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 대응 방안을 가르쳐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함.
- 뿐만 아니라 올 여름 홍수에 대비해 구호품들도 이미 북한 전역의 조선 적십자사 창고들에 비축해 뒀다고 밝힘.

● 미 구호단체, 북한에 삼륜차, 오토바이 등 지원(6/25,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북한에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10대와 오토바이 17대, 트랙터 부품 등을 지원해 지원품은 5월 말 평양에 도착했으며 현재 차량 등록 과정에 있음.
- 삼륜차는 지역 내 병원에 물품을 운반하거나 환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오는 9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번에 지원된 삼륜차와 오토바이, 트랙터의 사용과 유지 관리, 수리 방법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 오는 사리원과 황해남도 장연의 의료시설 두 곳에 태양열판과 물 저장탱크, 태양열 펌프, 수도관 등 수도 시설을 설치해 환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임.



- **내일 개성서 산림지원 관련 남북 민간단체 접촉(6/25, 연합뉴스)**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통일부는 '겨레의 숲' 이운식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방북을 승인했다"며 "겨레의 숲은 26일 개성에서 산림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겨레의 숲'은 개성시내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만나 대북 산림녹화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다.
 - 북한 산림 공동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 포함된 분야로, 박 부대변인은 "드레스덴 선언 등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협의) 진전에 따라서 (정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대북 산림녹화 사업 재개를 희망해왔지만, 정부는 당시 남북관계 상황을 들어 시일을 미루다 최근 들어서야 승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측 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거절하는 등 경색된 입장을 보였던 북측도 이번 접촉에는 호응하는 태도로 나온 것으로 전해짐.

- **남북, 北산림녹화사업 재개 합의... "병충해 방제 우선"(6/26, 연합뉴스)**
 - 이운식 겨레의숲 사무처장은 26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와 "남과 북이 산림 병충해 과제를 우선 과제로 정하고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사무처장은 "평양 대상용약산, 금강산, 묘향산 등에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남과 북이 병충해 방제를 우선 과제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팩스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남북은 병충해 방제에 이어 북한 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묘장 조성사업, 평양개성 등지의 조림사업 등도 차례로 재개하기로 함.
 - 북측은 최근 남한 정부의 민간교류 재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 상황을 감안한 듯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 **EU, 4년간 북한 병충해 방제에 82만 유로 지원(6/27, 미국의 소리)**
 -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농작물 보호와 병충해 방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럽의 정부간 기구, 농업생명과학센터(CAB International)에 지난 4년간 82만 유로, 미화 약 11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유럽연합 원조개발협력청은 농업생명과학센터의 관련 사업에 올해 미화 26만 달러, 2012년 49만 달러, 2010년 3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영국에 본부를 둔 농업생명과학센터는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내 토양해충 퇴치 사업을 실시해, 토양해충을 제거하는 천적 생산시설을 황해남도 안악군과 웅진군, 신원군에 설치하고 북한 농민들에게 토양해충 퇴치와 관련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농업생명과학센터는 최근 북한의 쌀과 강냉이 등 농작물이 토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많게는 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음.
- 이 기구는 북한에서는 토양해충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병충해 방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 북한동향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6.22)】 호주 외교장관(줄리 비숍)의 발언 관련 '똑똑한 대외정책과 주견도 없이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남의 말을 그대로 외워대는 호주 외무상이야말로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6.22, 중앙통신·중앙방송)

※ 호주 외교장관 발언 : "김정은은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들 방문 및 "가뭄피해 극복의 중요성 강조",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버섯공장건설장 현지 요해 및 협의회 진행(6.23, 중앙통신·평양방송)

- 협의회에서는 대상설비생산을 늘이고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제들과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했음.

- 석지동(농업성 부국장), 황해남북도·개성시·강원도 등 가뭄지속으로 "수만정보의 논이 갈라 터져 농작물 생육에 지장" 초래 및 각지 농촌들에서 군민(軍民) 총동원의 "가뭄과의 투쟁·물절약 투쟁" 전개 전언(6.23, 중앙통신)

- 강하천과 저수지들의 물량이 고갈된 조건에서 지질과 지형조건에 맞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1m³의 물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됨.

-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및 훼손(6.20, 고노담화는 외교적 실수 등)은 "그릇된 역사관의 집중적 발로"라며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고노담화 왜곡 부정행위 중단" 촉구(6.23, 중앙통신 논평/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 「고노(내각 관방장관) 담화(93.8.4)」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및 당시 일본정부 개입사실 인정과 사죄'



- 김정은 당 제1비서, 평양육아원·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6.25,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당 부장), 마원춘(국방위 설계국장인 육군 준장) 동행
 -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올해 당 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 표명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막대한 지하자원을 약탈한 행위를 거론하며 '일본 반동들은 죄 많은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한사코 거부해 나서고 있다'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6.24, 중앙통신/일제의 전대미문의 지하자원 강탈범죄)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